

언론 사람

09

2020
VOL.243



04 인터뷰 人+人
(사)새말새몸짓
최진석 이사장

06 Newmedia of the World
뉴욕타임스의 성공 뒤에 감춰진
지역 언론의 붕괴

08 세상사는 法
보도 사진,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일상을 되찾는 그 날까지,
팬데믹

- 04** 인터뷰 人+人
(사)새말새몸짓 최진석 이사장
- 06** Newmedia of the World
뉴욕타임스의 성공 뒤에 감춰진 지역 언론의 붕괴
- 08** 세상사는 法
보도 사진,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 10** 돌보기
순응자연의 가르침

- 12** 이달의 시
인간은 언제 둥근 수박만큼 진화할까
- 14** 단어의 중력
투명
-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일상을 되찾는 그 날까지,
팬데믹
- 18** NEWS
위원회 뉴스
위원 동정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권오근
발행일 2020년 9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코비즈 T 02-2272-1400
표지 작품 Meawstory15
<Pink Cosmos Flowers In The Garden>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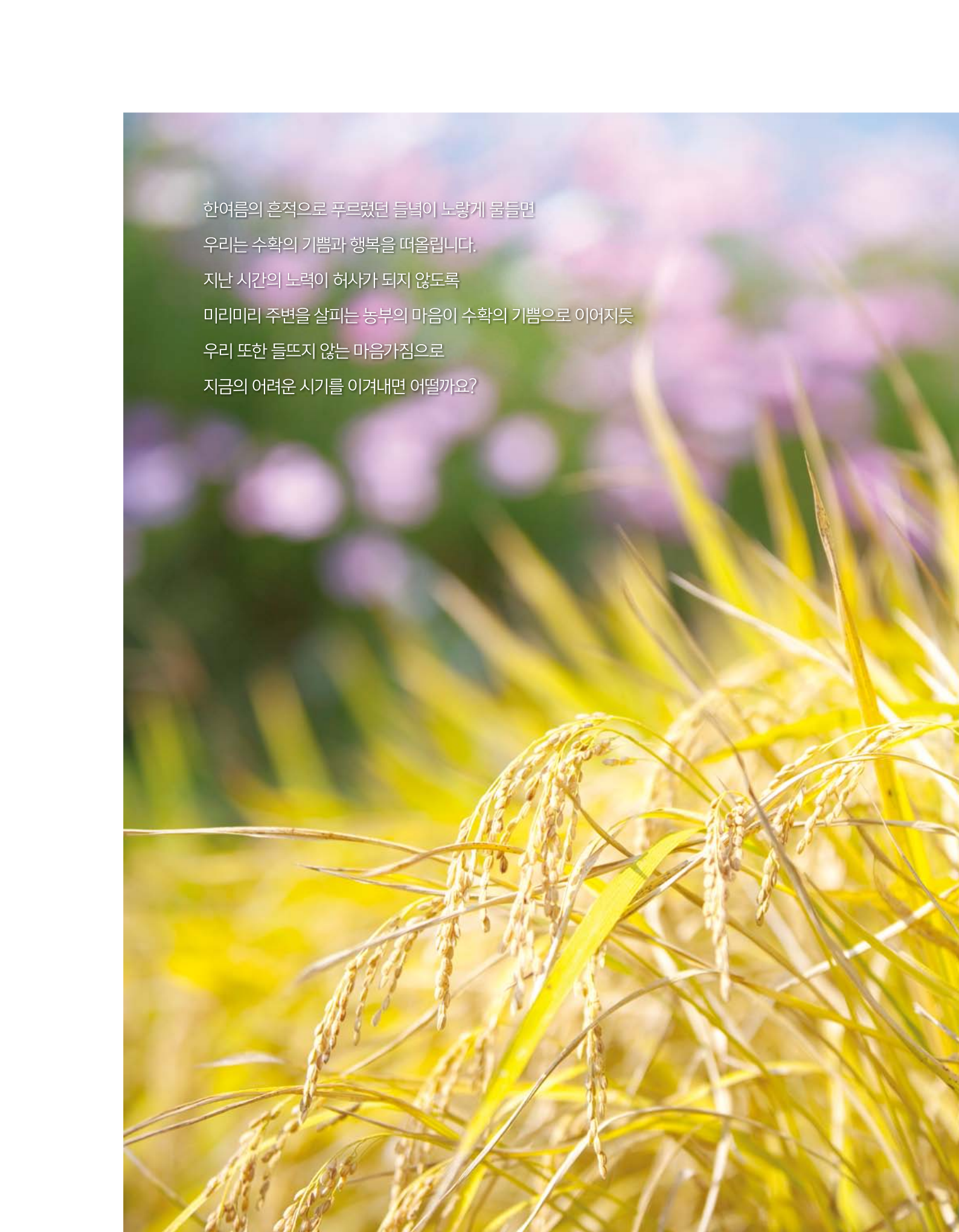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흔적으로 푸르렀던 들녘이 노랗게 물들면
우리는 수확의 기쁨과 행복을 떠올립니다.
지난 시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주변을 살피는 농부의 마음이 수확의 기쁨으로 이어지듯
우리 또한 들뜨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 어떨까요?

그대, 새 물결을 맞이하는 양심의 주인

(사)새말새몸짓
최진석 이사장



올 한 해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뉴 노멀의 시대는 곧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강대에서 건명원으로, 그리고 새말새몸짓으로.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는 이 시대의 통찰자, 철학자 최진석을 만나 현재의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다.

Q 학교를 떠나신 이후에도 강연과 저술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최근 <새말새몸짓>을 설립하시면서 그 폭을 더 넓히고 계신데요. 어떤 취지의 활동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A 오랜 시간 철학을 가르쳐오면서 저는 교육은 배움을 넘어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반드시 완성된 어떤 지점에 도착하자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지향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나를 완성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삶은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저 역시 스스로를 완성하려면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학교를 떠났고 작년부터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높이기 위한 '새말새몸짓'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함으로부터 탈피해 진정한 자유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9월부터는 <새말새몸짓 기본학교>라는 강의를 새로 여는데,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Q 매달 함께 책을 읽는 <책 읽고 건너가기> 사업이 눈에 띄니다. 책을 함께 읽는 활동이 개인의 사유와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A 코로나19로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독서를 통해 철학적 사유의 초석을 닦아 보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매달 책 한 권을 선정하면 각자 읽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죠. 첫 번째로 <돈키호테>를 골랐는데요. 돈키호테와 햄릿을 많이 비교하는데, 인간적 스케일에서는 돈키호테가 훨씬 큰 사람이라고 봐요. 장자의 사유와 통하는 부분도 있고요. <돈키호테>의 메시지를 가장 잘 담은 문장이라면 "쫓그라든 심장을 짝 펴십시오"라는 산초의 말이 떠오릅니다. 쫓그라든 심장을 가지고서는 자유롭게 살지 못하거든요. 심장을 펴고, 당당하게 살라는 <돈키호테>의 가르침을 토대로

삼고 사유를 시작한다면 많은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잘한 사람이 아니라 크고 굵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Q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말에서 보듯,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보통의 것(Normal)을 탈피하는 변화와 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이 도전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A 한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고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는 데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왔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도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의 결과를 수용하는 삶에서 생각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의지도 있고 능력도 충분합니다. K-POP의 세계적 인기와 <기생충>의 성공은 인간의 삶의 총화인 문화 분야에서의 성취여서 의미가 크죠. 또 'K-방역'이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선진적인 국가 시스템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단편적 스토리(Story)들을 우리의 히스토리(History)로 아직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기존의 가치 체계로 판단하면 시야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면 문명이 진보하고 변화할 기회 역시 잃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도 이를 막기에만 급급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지로 나아갈 것인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겠죠. 가령 이번엔 온라인 교육이나 재택근무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비용은 훨씬 적게 들었죠. 이런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관성을 이겨내고 새로운 것을 전면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터넷, SNS,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새롭게 다가온 것들은 무엇이 되었든 그 자체로는 중립적입니다. 이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방향을 결정지를 따름이죠.

Q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가짜뉴스, 혐오 표현, 악성 댓글 등 디지털 미디어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A 언론의 위기는 단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도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수용할 인격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언론을 둘러싼 사람들의 양심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반성 없는 양심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은 가공할 폭력을 야기합니다. 언론 역시 끊임없이 양심을 검증하지 않는다면 중국에는 '끼리끼리 언론'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미 민기로 합이 된 것만을 믿게 됩니다. 반성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 때문이죠.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언론 스스로가 끊임없이 사유한 결과에 대해 목소리를 내라는 뜻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권력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언론이 권력에 저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이 언론을 장악해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자정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 언론은 언제나 권력 앞에서 비판적 자세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표현의 자유란, 부단한 성찰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Q 초연결사회의 도래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의견을 공유하기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극단적인 분열과 혐오에 휩쓸릴 위험 역시 높아졌는데요.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서 건전한 소통을 위해 '나 자신의 주인이 될 것'을 강조하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A 극단적인 분열은 서로가 자신의 정해진 마음에 갇혀버리는 데서 발생합니다.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다름'을 배척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것만이 진리이며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생각 아래에선 다른 것은 틀린 것이고, 그것은 곧 악(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스스로 고민해서 도출해낸 생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타인의 의견을 반성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내재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체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개인들의 연합으로 존재할 때 건전한 소통을 통해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성 없이 내재화된 마음으로는 화합과 소통이라는 높은 단계로 건너가기가 어렵죠. 이런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고 진정 자유로운 마음이 된다면 분열과 혐오와 같은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언론사람>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일전에 책에서 "네 멋대로 해라!"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추앙하는 사회적 가치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는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거침없이 사십시오. 스스로의 욕망에 솔직하고 양심을 잘 버려내어 제 멋대로 사는 주인의 삶을 쟁취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릴 처음이자 마지막 한 마디입니다.

뉴욕타임스의 성공 뒤에 감춰진 지역 언론의 붕괴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구독자 수가 또 한 번 급증했다. 신문 광고의 가파른 하락세에도 디지털 구독 매출이 꺾총 뛰면서 수익의 안정감도 찾아가고 있다. 이젠 디지털 구독 매출이 종이신문 매출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누적 650만 명이라는 실로 어마어마한 구독자¹⁾를 보유한 뉴욕타임스는 디지털 구독 비즈니스의 확고부동한 왕좌에 올라섰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가 성장할수록 미국의 지역 언론은 더욱 궁핍해진다. 최근 15년 동안 지역 언론사 2,100곳이 문을 닫았고, 코로나19로 3만 6,000명의 지역 언론 종사자가 직장을 잃었다.²⁾

1) <https://www.nytimes.com/2020/08/05/business/media/nyt-earnings-q2.html>

2) <https://www.usnewsdeserts.com/reports/news-deserts-and-ghost-newspapers-will-local-news-survive/the-news-landscape-in-2020-transformed-and-diminished/>



뉴욕타임스가 디지털 구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몸집을 키우는 사이 정반대의 풍경이 미국 지역 곳곳에서 벌어진 것이다. 물론 두 현상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무엇이 원인지조차 규명하기도 쉽지 않다. 양극화라는 단어 외에 이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할 단어가 떠오르지조차 않는다.

뉴욕타임스는 조만간 새 CEO를 맞이하게 된다.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마크 톰슨이 물러나고 그를 성공적으로 보좌했던 메리디스 코피트 레비엔(Meredith Kopit Levien)이 그 자리를 승계한다. 저널리즘 비평 전문 연구기관인 니먼랩(NiemanLab)은 지난 7월, 곧 부임할 신임 뉴욕타임스 CEO에게 공개편지를 보냈다³⁾. “뉴욕타임스는 지역 저널리즘을 구제하기 위해 도움을 줘야만 한다”는 내용이었다. 세부 실천 항목으로 데이터와 기술 인프라를 지역 언론과 공유하고, 콘텐츠와 구독 상품을 다른 지역 언론들과 나눌 것을 제안했다. 뉴욕타임스의 수용 여부를 떠나, 현재 미국 지역 언론이 처한 위기의 정도를 가능하기에 이만한 지표나 글도 없을 것이다.

지역 언론의 위기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숙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와의 괴리에서 연유한 탓이 더 크다. ‘커뮤니티 중심 저널리즘(Community-Centered Journalism)’⁴⁾이라는 저서를 최근 출간한 미국 템플대 안드레아 웬젤(Andrea Wenzel) 교수는 필라델피아 지역 언론의 사례를 들며 이렇게 지적했다. “저먼타운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웃들은, 범죄 외에는 지역사회에 관심조차 없는, 심지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 외부자로서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는다.” 객관성과 관찰자라는 이름으로 지역 거주민들을 대상화하고, 폭력, 범죄와 같은 자극적인 뉴스들로 지역사회의 부정성을 부각함으로써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설명이다. 주거, 도시개발, 젠트리피케이션, 교육, 일자리, 교통,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현황 등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들은 거의 보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대형 헤지펀드의 지역 언론사 인수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악화됐다는 것이다.

웬젤 교수의 처방은 간단하고 근본적이다. 커뮤니티 기반 접근으로 지역 주민들을 더 관여시키고, 해법을 탐색하여 신뢰를 재구축 하자는 것이다. 실패한 프로젝트로 기억되는 뉴욕대 제이 로젠 교수의 공공 저널리즘(Public Journalism) 접근법의 연장선이다. 그는

지역주민을 취재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자고 제안한다. 그들과 가까이에서 협업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깊이 들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웬젤 교수의 제안을 수용하는 순간 저널리즘의 객관성 원칙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것이 그간 지역 언론이 처한 딜레마였다. 지역 언론의 객관성 딜레마는 지역주민과의 ‘거리두기’를 일상화했고, 지역 사회와 관심과도 멀어지게 했다.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 죄, 폭력, 차별 같은 자극적 소재에 대한 보도를 강화하는 습성도 지속시켰다. 지금은 이 빈틈을 페이스북의 그룹과 페이지가, 유튜브의 커뮤니티 기능이 파고들고 있다.

하워드 지프(Howard Ziff)는 ‘대도시 저널리즘 vs 지방 저널리즘’ 개념으로 지역 언론의 대안 모델을 주창한 연구자다. 그는 저널리즘의 대도시 중심 규범이 지방을 취재하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압도했다고 비판했다. 객관성의 원칙이 소규모 지역 저널리즘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와 저널리즘이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지역에서 엄격한 객관성의 저널리즘이 오히려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내왔던 것이 그간의 역사적 현실이다.

장황하게 미국 사례를 설명했지만, 결국 국내 지역 언론을 되돌아 보자는 취지다. 지역 언론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당면해 감면 발행을 하는 곳이 부쩍 늘었다. 무급 휴직, 순환 휴직은 평범한 일상이 됐다. 미국은 헤지펀드가, 한국은 지역 건설기업들이 지역 언론을 장악하며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공유와 지원, 사회적 책임을 호소할 뉴욕타임스 같은 대형 언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지역 저널리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이나 합의, 논쟁도 그리 활발하지 않다.

지역 언론이 그간 행해온 부정적 관행과 행태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렇다고 지역뉴스의 사막화가 대안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안드레아 웬젤의 ‘커뮤니티 중심 저널리즘’ 출간으로 모처럼만에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졌다. 덩달아 하워드 지프의 ‘지방 저널리즘’⁵⁾, 제이 로젠의 ‘시민 저널리즘’ 등 과거 논의까지 재조명받는 순간이다. 어차피 쫓아가지 못할 뉴욕타임스의 성공 사례 공부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언론과 저널리즘, 커뮤니티의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에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 네이버가 감히 시도할 수 없는 공공 저널리즘 영역이기에 더욱 그렇다.

3) <https://www.niemanlab.org/2020/07/an-open-letter-to-the-new-ceo-of-the-new-york-times/?fbclid=IwAR2P91MNBFPQ4XKeSfltnxWTEYiDjeqzOKtL7Qrc195YUxEk0In1OU1x8is>

4) <https://www.press.uillinois.edu/books/catalog/53bmr8ea9780252043307.html>

5) <https://dankennedy.net/2012/04/12/howard-ziff-on-the-varieties-of-local-journalism/>

보도 사진,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이미지의 시대다. 같은 내용을 보도해도 사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조회 수가 달라진다는 언론계 통설이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인지 요새 대부분의 온라인 뉴스는 사진을 함께 게재하고 있다. 그런데 취재와 기사 원고 작성에는 정성을 쏟으면서도, 보도 사진의 취사선택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자칫 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진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니 관련한 기본 법률 지식과 사례를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먼저 잘못된 사진 선택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작년에 한 언론사는 모 정치인이 세비를 기탁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적당한 보도 사진을 찾지 못한 탓인지, 위 기사 내용과 무관



한 사진을 게재했다. 위 정치인이 과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판에 출석했던 사진을 게재한 것이다. 더구나 보도 당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였다(대법원에서 후에 무죄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언론사는 문제된 보도 사진에 대하여 '원고가 재판에 출석하는 사진'이라고만 표시했고, 무죄 선고 사실은 밝히지도 않았다. 이에 법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인 원고가 형사사건,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법정에서 출석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반 독자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을 받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즉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암시'하기만 하면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일로 원고가 공판에 출석하는 사진을 게재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아, 언론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6415726 판결,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286판결).

저작권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SNS에 사진을 공개했다고 해서 이것이 언론사의 사용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한 최근 판례가 있었다(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61059,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7023 판결(확정)). 언론사는 "A 목사, 잘못된 신론 구원론 갖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A 목사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등을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A 목사 등의 페이스북에 공개된 원고(사진작가)가 촬영한 A 목사의 사진 등도 함께 게재했다. 언론사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페이스북 캡처'라고 출처를 표시하는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다수 언론사가 SNS에 공개된 사진을 출처 표시하고 게재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공정한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였다. 또한 기사의 주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목사 개인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는 데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했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공

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판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에 따르면, 사진 자체로써 기사의 클릭 수를 높이려는 의도 등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진 사용에 영리 목적이 있다고 선불리 인정하기 곤란하고, 언론사의 이러한 사진 사용이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어쨌거나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판례를 당분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SNS를 취재하는 보도가 점점 많아지는 요즈음, 타인의 사진을 뉴스에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사진 사용에 앞서 초상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앞서 살핀 것처럼 보도 대상자의 공개된 사진 사용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물며 보도 대상자의 가족사진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유명 방송인인 원고의 불륜 의혹을 보도하면서 원고의 미취학 아들이 나온 방송화면 캡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된 적이 있다. 법원은 '부모가 불륜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아들을 노출할 필요도 전혀 없고, 원고 아들이 어린 점'을 감안하여, 비록 원고 아들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사실이 있고 이를 다시 공개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 공개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언론사에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185202 판결).

이미지 콘텐츠 제공업체로부터 비용을 지불하고 게재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명예를 실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기사에 사진이 쓰인다면, 이때는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사진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사진을 제공한 업체는 '모델의 명예를 훼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내용의 라이선스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사가 이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 이처럼 보도 사진을 쓸 때는 명예훼손, 저작권, 초상권 등 법적 쟁점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보도 사진은 잘 쓰면 약이지만, 못 쓰면 독이다.



순응자연의 가르침

<신석(神釋)> 정신이 (삶의 이치를) 풀이해 준다

동진(東晉) 도연명(陶淵明, 365-427)

老少同一死, 노소동일사
 노인이나 젊은이나 똑같이 한 번은 죽고,
 賢愚無復數. 현우무부수
 현명한 이나 우매한 이나 다시 거론할 것 없다.
 日醉或能忘, 일취혹능망
 날마다 취하면 혹시 (무상감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將非促齡具. 장비촉령구
 아마도 수명을 재촉하는 도구나 아닌지.
 立善常所欣, 입선상소흔
 선을 이루는 것도 (그대가) 항상 좋아하는 일이지만,
 誰當爲汝譽. 수당위어예
 누가 장차 그대를 위해 칭송해 주겠는가.
 甚念傷吾生, 심념상오생
 심한 염려는 우리의 생명을 손상시키니,
 正宜委運去. 정의위운거
 진정 자연의 운행에 맡겨 살아가야 하리.
 縱浪大化中, 종랑대화중
 큰 변화 가운데에서 물결에 맡긴 채,
 不喜亦不懼. 불희역불구
 기뻐하지도 않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으리.
 應盡便須盡, 응진변수진
 끝날 때가 되면 바로 끝나야 할 것이니,
 無復獨多慮. 무부독다려
 다시는 홀로 많은 근심을 하지 말 것이다.

-
- 위운(委運)** 자연의 운행에 맡기다. '순응자연'의 다른 표현이다.
 - 대화(大化)**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가리킨다.[<열자(列子)·천서(天瑞)>,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큰 변화가 네 가지가 있다. 어린 이, 젊은이, 늙은이, 죽는 것이다.(人自生至終, 大化有四. 嬰孩也, 少壯也, 老耄也, 死之也.)"]
 - 응진(應盡)** '응당 죽어야 할 때가 되면'의 뜻이다. '진(盡)'은 '죽다'는 의미.



도연명은 남북조 시기 동진(東晉)에서 송(宋)으로 왕조가 교체되는 혼란기를 살면서 개성과 지조를 잘 유지했던 사람이다. 그 바탕에는 중국의 양대 사상인 유가와 도가의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유가적 소양을 닦았지만 <귀거래사>를 읊으면서 전원으로 돌아간 후에는 도가적 가르침을 실천했다. 특히 장자(莊子)의 영향이 지대했으니, 도연명의 시를 읽다보면 수시로 장자를 만나게 된다. 그 내용은 대자연에 대한 순응, 시비의 초월, 생사에 대한 달관 등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 들만한 시가 <정신이 풀이해 준다[신석(神釋)]>이다. 이 시는 연작으로 이루어진 <몸과 그림자와 정신(形影神)>이라는 3수의 시 가운데 마지막 수이다. 먼저 3수 시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수 <몸이 그림자에게 준다(形贈影)>는 무상한 인생에서 음주를 통한 쾌락을 추구하고 고민을 잊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는 입장이다. '몸[형(形)]'이라는 용어를 통해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속인의 비루함을 비유했다.

제2수 <그림자가 몸에게 대답한다(影答形)>는 선을 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공을 이루고 후세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가르치는 유가와, 내세의 보답을 위해 선행을 강조하는 불가를 대변하고 있다. '그림자영(影)'이라는 용어를 통해 권력이나 명예, 내세 추구의 허망함을 비유했다.

제3수 <정신이 풀이해 준다[신석(神釋)]>는 이렇게 주장하는 몸과 그림자에게 도가의 가르침을 풀어서 깨우쳐 준 내용이다. 3수가 모두 장편이라서 내용의 진수를 담고 있는 마지막 시를 선정했고, 그 중에서도 후반부만을 인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인용 부분의 1, 2구는 삶에 연연하면서 장생불사의 신선설을 추구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한 것이다. <열자(列子)·양주(楊朱)>에, “살아

서는 현명함과 우매함, 존귀함과 빈천함이 있으니 이는 다른 것이지만,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니 이는 같은 것이다. (….) 10년을 산 사람도 죽고 100년을 산 사람도 죽으며, 인자나 성인도 죽고 흉악한 이나 어리석은 이도 죽는다.(生則有賢愚貴賤, 是所異也, 死則有臭腐消滅, 是所同也. (….) 十年亦死, 百年亦死, 仁聖亦死, 凶愚亦死.)”라고 하여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깨우쳤다.

3, 4구는 속인들의 음주에 대한 탐닉을 비판했다. 나이가 술을 핑계로 방종을 일삼던 이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 술을 아예 '수명을 재촉하는 도구'라고까지 했다. 5, 6구는 유가와 불가에서 강조하는 선행에 대해 비판했다. 그것은 명예를 위한 것이거나 내세의 보답을 위한 것이니, 이 또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고 허망한 것임을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후반부의 여섯 구절이 3수 연작시의 주제이다. 앞의 두 구절에서는 순응자연, 즉 자연의 흐름에 따를 것[위운(委運)]을 당부하고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네 구절은 '순응자연'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不喜亦不懼'는 <장자·대종사(大宗師)>의, “옛날의,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죽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古之真人, 不知悅生, 不知惡死.)”라고 한 내용의 시적 표현이다. 세속적인 욕망이나 삶에 대한 집착 등으로 심한 염려와 많은 근심을 지닌 채 괴로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남조 양(梁)나라 소통(蕭統)이 도연명 사후 100여 년 뒤에 <도연명집>을 편찬했다. 그 <서문>에서 말하기를, “도연명의 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명예와 이익을) 쫓으며 다투는 마음이 버려질 것이다.(有能觀淵明之文者, 馳競之情遣.)”라고 했다. 도연명의 글이 명예와 물욕에 이끌려 길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앞길을 비추주는 빛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의 말처럼 도연명의 작품에는 탐욕과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현실의 각박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달관이 있다.

인간은 언제 둥근 수박만큼 진화할까

수박 박용하

폭양이 소나기처럼 흐르는 대낮이다

조각달처럼 아스한 수박 한 조각을 입 속으로 가져갈 때

좁쌀만한 씨의 기적!

피약벌 아래서 이 자그마한 씨는 시원한 별이 된다
식도를 타고 들어가 요도로 나오는 청량한 별 말이다

도대체 그 자그마한 씨가
어떻게 그리도 커다란 물통을 마른 땅 위에 창조할 수 있는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땡별을 옥샘으로 바꾸는 연금술이라니!
숙연해질 뿐이다

그까짓 수박 한 통 갖고 뭘 그리냐고 빈정거릴지 모르지만
내 눈엔 성자가 따로 없다

인간이 수박만큼 진화하려면
앞으로도 천만 년은 더 걸릴 것이다

- 〈영혼의 북쪽〉 (문학과지성사, 2000)에서

조각달처럼

아름다운



수박 한 조각

박용하(1963~)는 엄격한 시인입니다. 그는 좀처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무척이나 뜨겁고 격한 시인입니다. 그의 시엔 언제나 청년 같은 순정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박용하는 아주 질박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시엔 원석 같은 직심(直心)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답게 박용하에겐 세상의 웬만한 것들이 모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바쁘고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박용하에게도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한 외경과 찬탄을 바치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와 '자연'과 '성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이달의 작품 <수박>은 그가 이런 나무와 자연과 성자 앞에 바쳤던 최고의 거룩한 마음상태를 그대로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박용하는 이 작품의 모티프이자 모티브이신 수박 앞에서 수박이 탄생시킨 '기적'과 '연금술'과 '성스러움'이라는 생명 진화사의 고처(高處)를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수박이 불러일으킨 '좁쌀만 한 씨앗의 기적'을 보고 찬탄하며, 그 수박이 유려하게 창조한 '청량한 별'의 세계에 감동하고, '땡별을 옥샘(玉泉)으로 바꾸는' 탁월한 수박의 연금술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박용하 시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박 앞에서 이와 유사한 감정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름날의 수박이란 참으로 놀랍고 특별한 존재인지라 시인은 물론,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들만의 '수박의 몽상'이 오래된 추억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용하 시인의 '수박 찬탄'과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을 법한 '수박의 몽상'에 대해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음양오행론'에 의거하여 독해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작품 <수박>과 수박에 대한 감상이 보다 두터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을 펼쳐보면 수박은 채소열매입니다. 그러나 붉고 둥근 수박은 채소열매라고 부르기보다 과일이라고 부르고 싶어집니다. 이 수박 앞에서 시인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행복한 몽상

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도 설명이 되겠지만 수박이 지닌 '음양오행의 구축성'으로 깔끔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론은 동아시아 사상의 토대를 이루는 세계인식의 오래된 패러다임이자 방법입니다. 이 음양오행론은 언제나 '중화(中和)'와 '화평(和平)'의 상태를 지향합니다. 수박은 바로 이런 중화와 화평의 상태를 최적으로 구현한 대표적 표상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수박은 외피의 진초록으로 봄날과 같은 목성(木性)의 기운을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붉은 속살로 여름날과 같은 화성(火性)의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런가 하면 붉은 속살을 채우고 있는 엄청난 수분으로 겨울날과 같은 수성(水性)의 기운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속살의 안쪽에 보석처럼 박힌 까만 씨앗들로 가을날과 같은 금성(金性)의 기운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수박은 '봄/여름/가을/겨울'에 상응하는 '목/화/금/수'의 성격을 골고루 다채롭게 지닌 화려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수박의 기운이 여기서 멈췄다면 수박이 이 시에서처럼 최고의 존칭인 '성자'와 같다고 불리거나 사람들의 행복한 몽상의 한가운데에 머물기 어렵습니다. 수박이 그런 칭송을 받고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수박이 지닌 참으로 크고 무겁고 둥글고 묵묵한, 그 인상적인 형태에 깃든 토성(土性)의 작용 때문입니다. 이 토성은 수박의 발랄하고 다채로운 '목화금수'의 기운들을 중화와 화평의 상태로 안정되게 포용하고 일체화시키는 중심입니다.

수박이 지닌 이런 온전한 때문에 사람들은 수박을 만날 때마다 결핍이 없는 열린 총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수박에 대하여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수박을 앞에다 놓고 친교를 합니다. 이런 수박은 언제나 '혼자 먹으면서 함께 먹어야 하는' 멋진 역설과 중도의 교훈서 같습니다. 누구도 수박만은 고독하게 먹을 수가 없고, 독재적으로 혼자 먹을 수가 없습니다.

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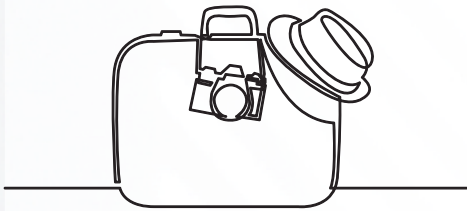


사진 : 황경신

독일 베를린

봄바람이 살랑살랑 간지럽힌 것도 아니고,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와 닿은 것도 아닌데,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 한낮에 무슨 이상한 바람이 불어, 너는 집을 온통 뒤집어엎는다. 시작은 네가 '책방'이라 부르는 조그만 방이다. 붙박이장이 있는 쪽을 빼고 세 면의 벽을 온통 뒤덮고 있던 책들이, 언제부터인가 바닥까지 점령해버렸다. 그러고도 일주일에 서너 권의 책을 사들이니, 내버려 두었다가는 책이 벽을 뚫고 튀어나올 판이다. 책 좋아하다 책에 깔려 죽을 거 같아 너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리를 시작한다.

중고서점에 백여 권을 팔고 오백여 권의 책을 버리고 나자, 책방을 책방답게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슬라이딩 책장을 주문한다. 책장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느라 이것저것 옮기다 보니 다른 방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나니 평생 건드릴 일도 없는

데 그저 꺼안고만 있는 물건들이 눈에 들어와서,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짹짹 채워 열 개쯤 내다버린다. 그다음에는 입지 않는 옷들과 신지 않는 신발들을, 쓰지 않는 그릇들을, 듣지 않는 CD들을 버린다. 내친김에 주방과 목욕탕 청소를 하고, 바닥을 싹싹 닦는다.

왜 여태 그냥 살다가 장마전선이 전국을 뒤덮고 있는 한가운데서 이 난리를 치는 건가. 원망할 사람이 없어 스스로를 탓하면서.

4년 전 이맘때, 매미 소리가 뜨겁고 열대야가 끝없이 이어지는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너는 베를린의 날씨를 검색하고 있었다. 최고기

온 24도, 최저기온 12도. 그 정도의 기온일 때 네 살에 닿았던 대기의 감촉이 어땠는지 쉽게 기억이 나질 않아, 너는 잠시 망연해졌다. 티셔츠는 얇을 것 같고 스웨터는 두꺼울 것 같아 손길이 한 없이 더뒀다. 어찌 되었거나 열흘 후면, 너는 미답지 못한 슈트케이스를 들고 공항에서 있을 예정이었다.

살면서 영 익숙해지지 않는 일 중 하나가 짐을 꾸리는 것이었다. 여기가 아닌 거기에서, 지금이 아닌 그때, 네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지 도통 짐작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는 '열흘이나 남았을' 그때,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여행에 대한 강박이 담쟁이넝쿨처럼 마음을 휘감기 시작했다. 그래도 때가 되면 슈트케이스는 가득 찰 것이고, 막상 가서 열어보면 필요한 건 없고 불필요한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네가 지니고 있거나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이 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었다. 달에 가는 것도 아니고.

달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너의 생각을 또 다른 생각이 받는다. 자라지도 않고 꽃 피우지도 않는 것들을 이고 지고 살아왔다. 욕심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짐짝이 된다. 네 삶 위에 수북이 쌓인 짐짝을 내다버리면서, 너는 투명한 무엇을 꿈꾼다.

사무칠 투(透)는 쉬엄쉬엄 갈 착(着)과 빼어날 수(秀)가 만나만 들어졌다.秀는 벼가 높이 솟아오른 모습을 본뜬 것으로, 높이 올라 길을 가로질러 간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이 뜻이 '사물을 꿰뚫거나 투과한다'로 확장되었다. 해와 달을 합하여 만든 밝을 명(明)은 해와 달 아래 모든 것이 명료하게 드러난다는 의미다. 그리하여 투명(透明), 속까지 환히 비치도록 맑고, 말과 태도와 상황이

분명함을 뜻하는 단어가 태어났다.

네가 여정을 꾸릴 때마다 사람들은 너를 부러워했다. 너는 '부럽다'는 말이 늘 거북하다. 누군가를 부러워한 적도 없고, 누가 너를 부러워한다는 말도 불편하다. 다른 인생이고 다른 운명인데, 삶의 단면을 저울에 올려놓고 왈가왈부하는 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그것을 가졌는데 나는 왜 못 가지지?'라는 생각을 자극하여, '다들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 너도 가져야 하지 않겠니?' 하고 온 세상이 이야기한다. '그것'을 가진 이들이 행복한지, '그것'을 가져서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그런 식으로 불필요한 것들이 쌓인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에 발목을 잡힌다. 긍정적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인주의자', 말하자면 타인의 삶을 염담하기보다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조금 덜 불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너는 짐을 꾸리는 대신, 삶을 꾸리기로 한다. 집과 차와 돈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사람도 잃을 수 있지만, 투명함이라거나 유연함, 다정함이나 강건함 같은 건 세상이 쉽게 훔쳐갈 수 없는 것일 테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 비교할 수도 없을테고.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나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것을 성정이든 가치든 마음이든 혹은 어떤 다른 이름으로 부르든, 그런 것을 갖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삶이면 좋겠다고 너는 생각한다. 더 많은 것을 내다버리고, 비워내면서.





일상을 되찾는 그 날까지, 팬데믹

*영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개봉해 얼어붙어 있던 극장가에 불씨를 지폈던 ‘#살아있다’(감독 조일형)는 이른바 ‘K-좀비’ 콘텐츠라는 외피를 쓰고 있으나, 좀비 자체에 대한 공포보다는 재난 상황으로 인해 고립된 인간이 겪게 되는 외로움, 혼돈과 불안에 더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아파트를 둘러싼 좀비들 때문에 굶주림과 고독 속에서 몇 주째 혼자 자가 격리를 하게 된 ‘준우’(유아인)의 상황을 그린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어도 외부와 단절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화 기획 단계에서 변종 바이러스의 습격을 예측했을 리는 없는데, 개봉 시점이 절묘했던 셈이다.

타카시 도셔(Takashi Doscher) 감독이 연출한 ‘팬데믹’(2020) 속 바이러스는 훨씬 치명적이다. 눈발처럼 날리는 잿빛 물질이 대기를 가득 채우던 날, 사람들은 HNV-21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여성들은 이것에 감염되기만 하면 구토와 경련 증세를 보이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남성들은 감염되어도 증상이 없지만, 전염은 되기 때문에 여성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연인 사이인 ‘에바’(프리다 핀토)와 ‘월’(레슬리 오덤 주니어)은 잿빛 눈이 내리던 날 이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처음에 두 사람은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집을 정비하고 방역 수칙을 정하는 등 바쁘게 지내며 곧 상황이 괜찮아질 거라고 서로를 위로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팬데믹의 공포는 이들의 사랑과 희망을 집어삼키고 만다. 미디어에서는 바이러스로 인해 여성들이 모두 사라지면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면 살아남은 여성들은 자진해서 임상실험에 참여해야 한다고 종용하고, 당국은 급기야 전수조사를 통해 숨어 있는 여성들을 잡아간다. 신고자에게는 거액의 포상금이 걸린다.

에바는 숨은 쉬고 있지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나날들 속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결국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기로 한다.

세계적인 재난 상황을 다룬 작품들이 대개 막대한 제작비를 들인 블록버스터들이던데 반해, '팬데믹'은 저예산으로 만든 작품이다. 월과 에바 외에는 인물도 거의 등장하지 않고, 이들의 작은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 러닝타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스펙터클한 볼거리를 기대했던 관객들에게는 꽤나 실망스러운 영화였을 것이다. 무엇보다 바이러스 눈 속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에바와 그로 인한 결말부는 논쟁적이다. 그러나 '#살아있다'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오랫동안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 또한 궁극적으로는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작품이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희망과 연대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로 인한 비극적 결말을 연인들의 사랑 속에 미화시킨 것은 팬데믹이 가져온 끔찍한 상황 및 공포와 대비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영화가 일상의 소중함과 희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에바가 극단적 결심을 하는 시점에서 드러난다. 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에바는 월과 사소한 일로도 갈등을 겪게 되고, 그들의 애정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130여 명이 있었던 온라인 생존자 채팅방에 사람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희망도 함께 사라져간다. 생존자 채팅방에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고 엄마까지 정부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에바는 오래 견뎌왔던 자가 격리를 끝내기로 한다. 연인의 사랑에 대한 의심, 유대감의 상실, 가족의 죽음이 생존해야 할 이유와 삶의 의지를 앗아간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영화는 여성에게만 치사율 100%인 바이러스를 만들어냈을까? 아마도 여성이 세상에서 급속도로 사라지면 인류가 존속할 수 없다는 공포가 심해진다는 설정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팬데믹' 속 위정자들은 여성들을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임상 실험으로 끌어가는 우를 범한다. 여기에 호응하듯 집 밖에는 포상금에 눈이



면 남성들의 시선이 번뜩인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합법화된 폭력으로 몰아가는 현대 사회의 일면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결국 팬데믹뿐 아니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디스토피아에서 에바가 선택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단 며칠이라도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시간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재확산된 코로나로 사회 전체가 다시 불안에 빠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을 더 적극적으로 살피고 '함께' 재난을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일 것이다. 두 작품 모두 현재의 상황과 더불어 일상의 소중함,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삶에 대해 성찰하게 해 주는 작품이다.

위원회 뉴스

2020년 제1차 예비법조인 연수 실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2020년도 제1차 예비법조인 연수를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77명이 참여했다. 이석형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연수는 언론법제 및 조정·중재제도에 관한 전문 교육 및 특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동안 가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위원회 채용형 인턴 임용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8월 3일자로 사무행정직 채용형 인턴(5급 예정) 직원 4명을 신규 임용했다.

근무부서	성명	임용일자
운영본부 기획팀	김남현	2020. 8. 3.
운영본부 총무팀	김은지	
교육본부 교육팀	민소영	
교육본부 연구팀	김수은	

위원 동정

운영미 위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정책토론회> 참석

운영미 위원(서울제8중재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은 8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과 뉴스핌이 공동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고영철 위원, <제주4·3 72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참석

고영철 위원(제주중재부,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명예교수)은 7월 31일 제주4·3평화공원기념관 대강당에서 ‘미디어로 본 제주4·3 코로나19 이후, 콘텐츠를 말하다’를 주제로 제주언론학회와 제주4·3평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다. 고 위원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허구인가? 제주신보 김호진 편집국장과 불온뼈라 인쇄사건 기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강문숙 위원, <취재현장에서의 인권 학술세미나> 참석

강문숙 위원(제주중재부, 강문숙 법률사무소 변호사)은 8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제주언론학회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취재현장에서의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다. 강 위원은 “취재현장에서의 인권을 논함에 있어 최상위 규범인 헌법이 정하는 ‘인권’에 관한 내용들이 언론인들에 의해 준수되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굿바이. 종이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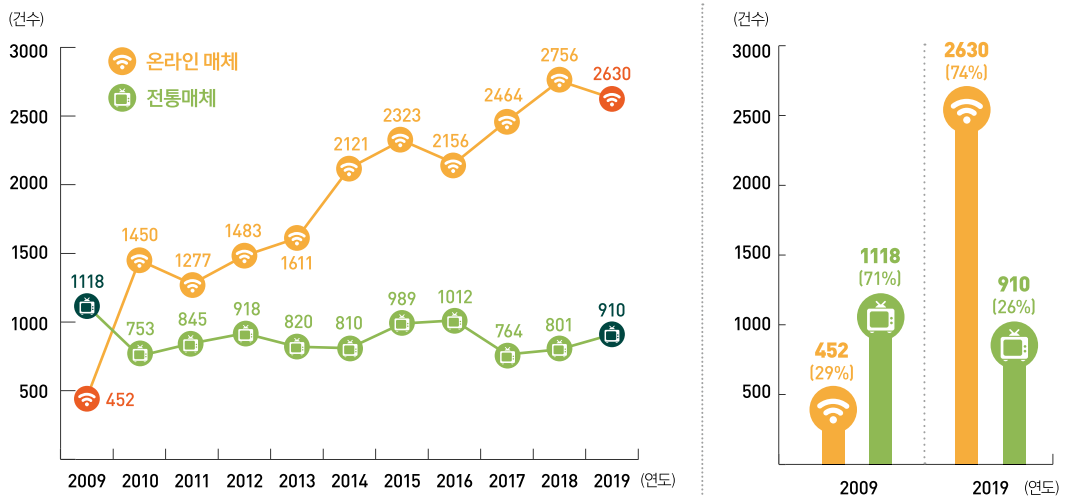
“신문 많이 보겠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일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렇듯 언론이라 하면 자연스레 신문과 방송 등 전통매체가 연상되는데요. 그러나 바스락거리는 신문의 질감을 느껴볼 일은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019년 언론수용자 조사>(2020)에 따르면 종이신문의 구독률은 2011년 24.8%에서 2019년에는 한 자리 수(6.4%)로 떨어졌습니다. 2011년 거의 절반(44.6%, 열독률 기준)이 종이신문을 보던 시대에서 이제 열 명 중 한 명(12.3%)만 종이신문을 보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렇듯 종이신문을 읽는 독자보다는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종이신문이 독자와 멀어지는 반면, 인터넷 신문은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것만 9천 개가 넘고,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뉴스통신 등 온라인 기반 매체까지 합하면 1만 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지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위원회의 온라인 매체 대상 조정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문, 방송, 잡지 등 소위 '전통매체'의 조정건수는 점진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도별 온라인매체 조정사건 추이



* 전통매체: 신문, 방송, 잡지

* 온라인 기반 매체: 인터넷 신문, 뉴스통신, 인터넷 뉴스서비스, IPTV

* 통계 수치 왜곡을 피하기 위해 대량 사건은 제외함

2009년에는 신문 등 전통매체가 총 건수의 약 71%였고, 온라인 매체는 29%에 불과했지만 10년이 지난 2019년에는 전통매체가 전체의 26%인 반면, 온라인 매체는 74%를 차지해 역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언론중재위원회도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0. 8. 17).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https://pds.mcst.go.kr/main/regstatus/selectRegStatusDetail.do>

항상 듣고 있을게요,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 곁에는 언제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은 물론 포털뉴스까지 언론분쟁을 비용 없이 신속·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